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가이드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 2021 #접근성 과정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워크숍 사례를 중심으로-



본 자료는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2021년 6월 28일부터 7월 26일까지 영국 보컬아이즈(VocalEyes) 소속 음성해설사 로즈 차머스(Roz Chalmers)와 협력하여 추진한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워크숍> 총 8회차의 내용을 기록한 것으로 각주는 필자가 덧붙인 자료임을 밝힙니다. 음성해설사 용어의 혼동을 막기 위해 텍스트를 쓰는 사람을 음성해설 작가, 낭독하는 사람을 음성해설 성우라고 표기합니다.

음성해설은 인권과 접근성에서 출발합니다.

1. 음성소개(audio introduction) 4

- 1.1 음성소개 유형
- 1.2 음성소개 분량
- 1.3 음성소개 내용
 - 1) 공연정보
 - 2) 배경
 - 3) 등장인물
- 1.4 안내(경고)
- 1.5 음성소개에서 피해야 하는 것
- 1.6 음성해설 작가가 고려할 점

2. 음성해설(audio description) 실전 8

- 2.1 장소
- 2.2 등장인물
- 2.3 조명
- 2.4 소리
- 2.5 시각적 문해력: 의상, 시선, 움직임 관찰
- 2.6 유머
- 2.7 여백
- 2.8 지시어 / 지시 대상 및 사물
- 2.9 해설 지점
- 2.10 뮤지컬

3. 음성해설작가의 역할 및 고려사항 13

4. 이용자(시각장애인 관객) 이해 15

5. 음성해설과 마케팅 16

6. 터치 투어 16

7. 피드백 17

- 참고. 음성해설 제작과정
 - 음성해설 대본 양식
 - 공연 음성해설 과정

8. 맺는말 30

1. 음성소개(audio introduction)

음성소개는 실제 ¹공연 이전, 시각장애인에게 음성으로 제공되는 정보를 말한다. 공연의 전반적인 스타일을 알려주는 것으로 시각장애인들은 무대 세트, 등장인물², 의상³ 등에 대한 대략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다.

1.1 음성소개 유형

- 텍스트 음성소개: 인터넷⁴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형태로 시각장애인들은 스크린 리더기로 청취
- 녹음 음성소개: 음성으로 녹음한 파일⁵
- 현장 음성소개: 공연 전에 음성해설 작가, 성우 혹은 배우, 관계자가 현장에 낭독

1.2 음성소개 분량

- 온라인 제공 텍스트나 녹음 음성소개는 내용에 따라 15분 이하⁶

1.3 음성소개 내용

- 1) 공연의 간단한 정보: 작품 이름, 연출가, 배우, 원작의 유무 등 전반적인 배경 정보(뮤지컬이라면 작곡가도 추가)

.....

- 1) 음성소개는 공연 전에 제공되는 정보이지만 실제 작성 시, 음성해설 작업을 끝내고 마지막에 쓰는 것이 좋다.
- 2) 등장인물의 외모, 체형, 머리 스타일 및 색, 피부색 등도 극에 따라(필요성 고려) 해설한다.
- 3) 시대극이라면 의상과 소품, 세팅 해설이 중요하다.
- 4) 공연 홈페이지나 SNS 적극 활용 가능
- 5) 인터넷으로 다운받거나 필요에 의해 CD로 배송하는 방법도 있다.
- 6) 로즈 차머스 음성해설가는 15분 이하라고 제안했지만, 자칫 듣는 사람과 작성하는 사람 모두에게 압박을 줄 수 있는 분량이다. 영국과 유럽 여러 나라에서 연구한 음성소개 관련 논문에서는 A4 1~1.5장을 권장하고 있다. 온라인 제공 시 음성소개는 5~10분이 적당하며, 현장에서 음성소개 시 5분 내외로 짧게 끝내는 것이 좋다.

2) 배경(세트장)

- 논리적으로 명확하게 한 장의 그림을 완성하듯 해설
- 물건, 장소의 규모와 크기⁷
- 물건, 장소의 상태(더러움, 깨끗함)
- 대상의 색깔과 질감
- 빛의 밝기, 상태, 방향
- 무대의 전경, 중앙, 배경
- 무대 장식 혹은 소품: 사람들의 관심과 눈길을 끌 만한 것, 맥락과 연결되는 것

3) 등장인물

등장인물의 성격 등을 직접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들이 스스로 유추할 수 있도록 머리 모양, 색깔, 의상 등을 설명한다. 영국의 경우 배우들에게 자신이 연기하는 등장인물의 어떤 요소들이 음성소개에 들어가기로 원하는지 설문지를 통해서 물어보고 취합하여 반영한다.

〈사례1〉 뮤지컬 〈위키드〉에서 녹색

내용	· 마을 사람들은 피부가 초록색인 마녀를 거부하고 이상하다고 생각함
공연 전 워크샵	· 어린이 관객들과 녹색 얼굴을 주제로 토론 · 녹색의 긍정 의미: 희망, 젊음, 청명함 · 녹색의 부정 의미: 서구에서는 질투심을 나타냄. 부패하거나 상한 것 혹은 덜 익은 과일을 나타냄

.....

7 규모와 크기를 해설할 때 '매우 큰', '아주 작은' 등 비교 대상에 따라 크고 작음이 바뀌는 형용사보다 구체적으로 해설하는 것이 좋고 일상 사물의 크기에 빗대어 설명하는 것이 좋다. 예) 신용카드 크기의 OO, 건물 2층 높이의 OO, 팔뚝만 한 물고기

〈사례1〉 뮤지컬 〈위키드〉에서 녹색

음성소개에서 알려준 색상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각장애인 어린이 관객들이 색상의 이미지를 배울 기회 · 주황색과 옅은 분홍색이 밝은 색감임을 배움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색깔은 촉각을 전달 · 오렌지를 먹으면 신맛이 나고 손가락이 베었을 때 오렌지즙이 들어가면 따가움 · 시각장애인들에게 오렌지 색은 밝고 따가운 이미지를 주는 색

- 중요한 인물부터⁸
- 머리 모양, 색깔
- 의상
- 외모
- 성별
- 인종
- 키 / 체구(다부진 체격 / 살집이 많은)
- 특이한 움직임
- 등장 인원

1.4 안내(경고)

공연에서 사용되는 다양한 음향효과와 특수효과로 인해 관객들이 깜짝 놀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사전에 공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공연 내용에서 총소리,

.....

8 등장인물이 5명이라면 음성소개에 모두 소개하지만 14명이면 중요도에 따라 5~6명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다. 14명 모두 나름의 비중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분량을 조절하여 짧게 소개할 수 있다. 음성소개는 본 공연을 음성해설과 함께 잘 이해하기 위한 보조적 수단이지 마법의 설명서가 아니다. 무대와 의상 등 다양한 정보를 골고루 전달하기 위해 등장인물 해설도 분량 조절이 필요하다.

대포 소리 등 큰 소리가 난다고 안내함으로써 보조견⁹을 동반한 시각장애인이 관람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한다.

1.5 음성소개에서 피해야 하는 것

- 이야기(내용)
- 두서없는 순서로 세트장 설명
- 의상 설명 시 입고 있는 옷을 평가하는 것(옷이 너무 크다/ 촌스럽다/ 가슴이 너무 드러난다)

1.6 음성해설 작가가 고려할 점

- 시각 정보를 보고 그것을 해설한 이유¹⁰를 생각하며 쓰기

.....

9 훈련이 잘 된 보조견이라 하더라도 느닷없는 큰 소리나 안개, 불꽃 등에 동요하거나 흥분할 수 있다.

10 음성해설 작가는 늘 자신 앞에 있는 다양한 시청각정보 중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모든 것을 설명해 줄 수 없으므로 자신이 선택한 정보가 왜 타당했는지를 늘 생각해야 한다.

2. 음성해설(audio description) 실전

2.1 장소

- 연극에서 한 장소만 나오는 경우: 어려움 없이 장소 설명 가능
- 연극에서 여러 장소로 바뀌는 경우: 중요한 등장인물이 어떤 장소에서 어떤 사람들이 만나는지를 순서에 맞춰서 설명

병원	집	사무실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
간호사	엄마	상사
의사	할머니	동료

2.2 등장인물

- 너무 상세하게 설명하면 기억의 제안이 따르기 때문에 세부적 설명은 지양
- 나이
- 이름(극 초반에는 누가 누구인지 몇 번 반복해서 알려주는 것이 좋음)
- 성별
- 인종
- 생김새나 특징(얇은 입술, 시원한 눈매, 길쭉한 하관 등)

2.3 조명

- 공연 일부이며 관객들이 주목했으면 하는 기능
- 조명으로 달빛, 햇빛 등을 표현
- 단순히 흰 조명이나 파란색 조명이라고 하지 않고 새벽의 조명인지 도시의 조명

인지 설명하는 것이 좋음

· 조명의 위치

2.4 소리

· 공연에서 들을 수 있는 다양한 소리를 왜 해설해야 하는가?

〈사례 2〉 리어왕		
내용: 세 딸(고네렐, 레건, 코딜리아)이 얼마나 아버지(리어왕)를 사랑하는지 효심을 증명하는 자리에서 느낄 수 있는 다양한 의미		
등장인물	내용	소리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이유
첫째 딸 고네렐과 남편	남편이 발언하려는 고네렐에게 마이크를 넘겨 줄 때 찢어지는 소리가 나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급작스럽게 들리는 소리에 대한 궁금증· 무슨 소리인지 알려줌으로써 마이크도 제대로 넘겨 주지 못하는 남편의 무능함이나 섬세하지 못한 성격을 넌지시 알려줌
〈사례 3〉 위키드		
마녀의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황(이때 효과음은 에어캡이 터지는 듯한 소리)		
등장인물	내용	소리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이유
마녀	손가락이 부러지는 상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시각장애인들이 자기 손가락을 움찔하며 탄성을 지름· 현장에서 비시각장애인들의 반응은 시각장애인들에게 궁금증을 일으킴·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의 불균형으로 이야기를 이해 못 함
〈사례 4〉 워호스(War Horse:전쟁마)		
사이렌 소리와 야유하는 사람들, 프로젝션	깜깜한 무대에 프로젝션이 있고, 그 위에 누군가의 드로잉으로 사이렌이나 크레인, 배가 나타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이렌 소리를 들을 수 있지만, 프로젝션의 그림임을 알려 줄 필요 있음

2.5 시각적 문해력: 의상, 시선, 움직임을 관찰

· 다양한 시각적 정보를 해설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사례 5〉 리어왕 둘째 딸 레건이 리어왕에 대한 자신의 효심을 발언한다		
등장인물	상황	해설이 필요한 이유
레건과 남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첫째 딸 남편과 다르게 레건의 남편은 마이크를 잘 넘겨줘서 소리가 안 나고, 레건의 등을 살짝 두드려주며 응원하는 모습도 보여줌 · 레건은 짙은 갈색(붉은색)의 드레스 차림이고 남편은 같은 색의 셔츠를 재킷 안에 입어서 드레스코드를 맞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러한 정보들을 조합해서 두 사람의 관계를 이해함

〈사례 6〉 리어왕 둘째 딸 레건과 리어왕의 관계		
등장인물	상황	해설이 필요한 이유
레건과 리어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어왕에게 걸어갈 때 엉덩이를 약간 흔드는 듯한 둘째 딸 · 리어왕의 무릎에 앉아서 이마에 보뵈하는 둘째 딸 · 딸의 입술에 보뵈하는 리어왕 · 딸이 일어나서 뒤돌아가 갈 때 리어왕이 딸의 엉덩이를 때림 · 딸은 뒤도 안 돌아보고 가면서 약간 비틀거림(당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약간 유혹적인 관계임을 파악 · 뭔가 어색함도 느낄 수 있음

2.6 유머

· 대사, 등장인물의 움직임, 전달 방식 등 관중이 웃는 포인트를 알아내는 것이 중요함

- 음성해설 작가가 왜 웃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 관객들이 왜 웃는지를 파악해야 함¹¹

2.7 여백

- 긴장된 사이나 호흡은 살려줄 필요 있음(배우의 톤이 변하거나 긴장된 호흡을 느낄 수 있는 곳 등등)
- 시각장애인 관객들이 생각하고 호흡할 시간을 주는 것¹²

2.8 지시어 / 지시 대상 및 사물

- 지시하는 것을 해설하기

2.9 해설 지점

- 공연 시작 불이 켜지고 무대가 보이면 시작
- 대사가 없을 때
- 등장인물의 웃음소리가 줄어들 때 빨리 들어가야 함
- 어떤 경우는 대사 끝나고 바로 들어가야 함

.....

- 11 TV나 다른 매체와 달리 극장 영화나 공연 작품은 관객의 다른 감각을 일깨우는데, 바로 현장감과 생동감이다. 2007년 <김관장 대 김관장 대 김관장> 영화가 개봉했을 때의 일이다. 이 영화는 극장에서 음성해설(화면해설) 서비스를 함께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에 필자는 개봉 전에 DVD를 먼저 받아서 작업했다. 하지만 극장에서 관람도 했는데, 그때 관객의 반응이 음성해설에 얼마나 중요한지 느낄 수 있었다. 영화의 후반부에 카메오로 탁재훈 씨가 등장한 순간 객석에서 웃음이 터져 나왔다. 당시 1차 완성 대본에는 대사 사이 공간이 없어서 해설하지 않았는데, 현장에서 그 웃음을 들은 그 날 바로 대본을 수정했다. 대사 사이를 비집고 들어가서 <카메오 탁재훈>이라고 삽입했는데 “이어주기 해설(through description)”의 하나이다. 이후, 음성(화면)해설 전문작가 강의에서 이 사례를 꼭 들며 극장이나 공연 음성해설에서는 관객의 반응도 음성해설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라고 설명하고 “이어주기 해설” 중요성도 언급해 오고 있다.
- 12 친절한 해설은 지양하고 시각장애인들의 감정을 일깨우고 그들이 해석할 수 있게끔 유용한 정보를 효과적인 방식으로 전달해야 한다.

- 선해설과 후해설¹³: 행위가 일어나는 순간 등장인물이 대사를 하기 때문에 음성해설 할 공간이 없다. 이 경우 대사가 끝나거나 시작되는 앞뒤에 공간이 있다면 미리 해설하거나, 나중에 해설할 수 있다.

2.10 뮤지컬

- 화려한 조명, 의상, 많은 등장인물, 밴드, 오케스트라 등 규모가 큼
- 엄청난 시각 정보 제공
- 시적으로 쓸 필요는 없고 직접적이고 담백하며 적절한 어휘나 문장으로 설명
- 뮤지컬은 유일하게 내용(노래)과 겹쳐질 수 있음¹⁴
- 노래의 가사를 훼손하지 않고 전달해야 하므로 1절은 보존하고, 2절이나 후렴에서 음성해설
- 댄스나 움직임, 춤의 경우 누가 추는지 알려줄 필요 있음
- 춤을 통해 이야기가 구축되는 경우 해설 필요
- 의학적인 몸의 움직임만 설명하면 재미없고 따분함
- 춤이 얼마나 천천히 혹은 빠르게 진행되는지, 높이 뛰는지, 바닥에 가깝게 붙어서 표현되는지를 함께 설명
- 적절한 형용사, 부사, 동사 찾아서 효과적으로 설명

.....

- 13 비시각장애인들에게 아직 일어나지 않은 일이나 이미 일어난 일을 해설하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경계해서 써야 한다. 선해설과 후해설은 그 행위가 웃음을 유발하거나 맥락에 중요하다고 판단할 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 14 노래와 겹칠 수 있다고 모든 노래를 음성해설로 덮으면 원작을 훼손시켜 시각장애인의 감상을 방해할 수 있다. 때에 따라서는 노래 가사가 더 중요할 수도 있으므로 연출가나 음악 감독과 잘 의논하여 노래를 보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례 7〉 미녀와 야수

등장인물	상황	노래를 통해 알 수 있는 정보
벨, 가스통, 마을 사람 다수	벨이 책을 읽으며 마을로 나와서 사람들과 인사하는 장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 사람들은 벨이 책만 좋아하는 특이한 성격으로 생각 · 가스통에 대한 마을 사람들의 평판 · 벨이 가스통에게 어울리는 신봇감이라고 생각하는 이유

〈사례 8〉 스위트로드

등장인물	상황	노래와 음악, 소리가 어떤 정보를 주는가
이발사와 남자	이발사가 그릇에 이발 크림을 개서 남자에게 면도를 해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발사가 크림을 그릇에 넣고 갈 때 달그락달그락 소리 · 이발사의 휘파람소리, · 남자의 턱과 수염에 바르는 소리 · 이발사의 노래와 음악, 소리가 어떤 정보를 주는가?

3. 음성해설작가¹⁵의 역할 및 고려사항

- 음성해설 작가는 다음과 같은 질문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한다.
 - 어떤 이야기를 하려는 걸까?
 - 무엇을 전달하려는 걸까?
 - 관객들이 유추하게 하려면 어떻게 전달해야 할까?
- 공연 음성해설 연습 과정
 - 영상으로 연습
 - 리허설(런쓰루)에서 실제 연습

.....

15 영어의 audio describer를 번역하면 음성해설사이지만 한국에서는 음성해설을 쓰는 사람을 음성해설 작가, 음성해설을 낭독하는 사람을 성우라고 부르기 때문에 혼동을 줄이기 위해, 여기서는 음성해설 작가로 한다.

- 공연 전날에 영상으로 재연습
- 음성해설 작가의 직업윤리
 - 음성해설 작가에게 민감한 주제(성폭력, 가정폭력 등)라서 고통이 수반되면 작품 제안을 거절해도 된다.
 - 장르의 호불호를 두고 선택하는 것은 권하지 않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장르 혹은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더 나은 결과물을 내기도 한다.
 - 음성해설작가가 공연에서 직접 해설하고 싶다면 자신의 일정과 공연 날짜가 맞는지 확인 필요
- 음성해설 작가의 역할 범위
 - 음성해설에 필요한 소스(영상, 대본¹⁶)와 작업조건(걸리는 시간, 제작비) 알리기
 - 음성해설 과정 안내
 - 터치투어 제공의 필요성 알리기
 - 실제 터치투어를 실행하는 것은 극장관계자의 역할과 책임
- 공연 음성해설 시 고려사항
 - 실제 공연 관람 동안 기록(전자기기 사용금지, 종이 넘길 때 조심하며 노트에 기재)
 - 옆에 다른 관객이 없고 많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좋은 자리 요구
 - 의상이나 배경을 미리 적어서 ¹⁷음성소개 쓸 때 도움을 받음
 - 무대를 직접 경험해도 되는지 물어보기(무대감독 동반)
 - 공연 전에 방문해서 세트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경험하지만, 관계자와 꼭 동반하고, 허락되지 않은 공간은 들어가지 않아야 함(예의 지키기)

.....

- 16 저작물에는 저작권이 있음을 알고, 비공개 유지, SNS에 업로드 시 동의를 구하고 사진을 올리는 등 직업윤리를 강하게 갖고 있어야 한다.
- 17 로즈 차머스 음성해설가는 음성소개는 적어도 10일 전에 제공되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지만, 현장 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의상이 늦게 나올 수 있고, 무대를 당장 확인하는 것이 힘들 수도 있어서 10일이라고 고집할 필요는 없다. 대신 공연 관계자들과 의논하여 최대한 시일을 당기는 방향으로 하면 좋다.

- 시각장애인 모니터 받기
- 공연에서 음성해설 작가가 직접 낭독한다면 마이크 사용 방법 숙지하고 종이 대본보다 태블릿이나 노트북 권장¹⁸
- 기본이 3시간 이상 앉아있어야 하므로 좋은 의자 요청(책상 필수)
- 음성해설 성우
 - 남자가 많이 나오는 공연에서는 여자 성우를 캐스팅(반대도 가능)
 - 극¹⁹의 종류나 목적에 따라 성우의 성별, 목소리 톤 고려

4. 이용자(시각장애인 관객) 이해

- 티켓 예매 시
 - 온라인: 유명한 연극을 예매할 때 1분도 안 돼서 매진되는 사례가 많아 시각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창구가 필요
 - 오프라인: 티켓 배부 시 무대로부터 시각장애인의 자리가 어떻게 위치하고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 설명 필요
- 안내견
 - 비시각장애인들과 극장 관계자들, 배우들은 놀라지 말고 존중해야 할 존재로 인식
- 음성해설 전달
 - 형용사(예쁜 / 아름다운) 등으로 설명하는 것보다 왜 예쁜지 어떻게 예쁜지 설명
 - 음성해설 작가의 주관적 판단으로 감정을 강요하지 말기
 - 이용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중요한 정보를 의미 있게 전달

.....

18 녹음 부스가 따로 있으면 상관없지만, 소극장은 없는 경우가 많아서 전자기기를 사용하더라도 빛이 최대한 밖으로 안 나가게 철저히 막는 것이 중요하다. 필자가 참여한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는 개방형 음성해설이었고 공연에서 해설을 맡은 필자의 모습이 무대 한쪽에서 노출되었기 때문에 전자기기 빛이 공연 관람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미리 공지했다.

19 아동극의 경우 밝고 톤이 높은 여자 성우, 목소리가 부드러운 남자 성우, 인자한 할머니나 할아버지 성우 모두 가능하다.

5. 음성해설과 마케팅

- 음성해설은 숨겨진 서비스라서 어떤 사회에서든 아는 사람이 드물다.
- 휠체어 공간 제공, 수어 통역 제공, 서브타이틀은 가시적이지만 음성해설은 비가시적이다.
- 극장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마케팅이 필요하다.

6. 터치 투어

터치 투어는 시각장애인 관객들을 공연 전에 초대해서 무대에 직접 서 볼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하는 것으로, 극장관계자와 함께 진행된다. 시각장애인 관객들은 터치 투어 동안 실제로 소품이나 의상을 만져볼 수 있고, 배우도 만날 수 있다.

- 시각장애인 관객의 지식 공백을 채워줄 수 있음
 - 실제로 배우를 만나고 의상을 만져보면, 이미지를 형성하는 데 많은 도움
 - 해설하거나 묘사하기 어려운 의상의 촉감 같은 것을 터치투어로 실감 나게 알게 됨
 - 놀이를 제공하는 이벤트 기능
- 터치 투어 과정
 - 관객들을 극장으로 데리고 감
 - 물품보관소에 짐 맡기기
 - 진행 과정 소개²⁰

.....

20 음성해설 작가나 음성해설 성우가 시각장애인들에게 설명하는 것이 좋다. 만약에 성우가 한다면 현장 해설 설명과 함께 터치 투어를 진행할 수 있다.

· 터치 투어 시 주의사항

- 극장의 관계자들이 시각장애인 관객들을 책임지고 보살펴야 함²¹
- 장애물이 많이 없고 짧은 동선으로 루트 짜기
- 관계자들은 시각장애인 안내 훈련을 받아야 함
- 시각장애인의 손을 잡아서 소품으로 끌고 가는 행동은 하지 말아야 함
- 터치 투어 끝나고 관객들을 좌석으로 안내하고 장비²²를 제공함

7. 피드백

이번 장에서는 로즈 차머스 음성해설사(영국)가 워크숍 참가자들에 전한 피드백을 통해 음성해설 작가가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아본다.

“연극 〈몬스터 콜〉 마지막 장면에서 관객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당신의 해설을 통해 시각장애인 관객 역시 그 수준으로 감동할 수 있을까요?

바로 그걸 목표로 하는 겁니다.”

“상상력을 자극하는 이미지 해설”

“작품에 완전히 몰입할 수 있는 글을 쓴다는 것에 대해 생각해보기 바랍니다.”

“TV, 영화, 공연의 다양한 음성해설을 듣고 이야기 전달 방식에 몰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21 극장 내부를 가장 잘 아는 것은 관계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시각장애인(동반인 포함)을 안내하는 역할은 관계자가 해야 한다. 그래서 안전 관리 감독도 함께 신경 써야 한다.

22 음성해설이 폐쇄형으로 진행된다면 송수신기를 제공하면 된다. 오픈형이라면 좌석 안내까지 하면 된다.

“음성해설은 듣는 사람에게 증거를 보여주는 방법입니다”

“발가락을 부딪치거나 고르지 않은 길에서 넘어져 숨이 멎을 정도로 다쳐본 경험은 누구에게 있죠? 청취자를 그 순간으로 데려가 그 느낌을 기억하는 장소로 이동시키면 청취자가 코너(연극에서 캐릭터 이름)의 행동에 대한 의견을 스스로 형성하고 직접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뇌에는 거울 신경 세포라는 게 있어서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 사람에게 공감적인 피드백을 제공합니다. 이야기를 보거나 들으면 등장인물의 이야기에 대한 링크가 만들어지죠. 바로 그 거울 신경 세포를 자극하는 게 우리 일입니다.”

참고. 음성해설 제작과정

- ‘연극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의 사례-

본 장에서는 음성해설 대본 양식에 대해서 알아보고 음성해설 공연 제작일지를 통해 음성해설 과정을 살펴본다.

음성해설 대본 양식

음성해설 대본은 음성해설 작가가 작성하지만, 대본을 최종적으로 읽고 사용하는 사람은 음성해설 성우와 제작진(녹음한다면 엔지니어)이기 때문에 가독성이 좋아야 한다. 음성해설 문장은 대사와 대사 사이 혹은 장면과 장면 사이에 들어가므로 원 대본의 글자 크기나 폰트와 차별을 두어 시각적으로 눈에 띄게 바꾼다. 양식은 아래와 같다.

음성해설: 강조체 + 글자 크기(11~12) + 맑은 고딕 + 밑줄²³

씬 1 무대

음성 음성해설 대본은 어떤 양식으로 작성하면 좋을까?

해설 글자 크기를 크게 하고 굵게 강조한 후 밑줄을 그으면 좋아.

(녹음점) 해설이 마우스로 음성해설 글자만 검게 블록을 설정해서 크기를 12로 바꾸고, 굵게 강조한 후 맑은 고딕체로 변경한다.

음성 글자 크기와 폰트, 강조체, 밑줄까지 그으니까 눈에 확 띄네.

.....

23 규칙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필자가 2003년 화면(음성)해설 작가로서 일하면서 다양한 시도 후 지금의 대본 양식을 만들었는데, 글자를 크고 굵게 강조하고 밑줄 그어서 원대본의 글자와 차별을 두었을 때, 가독성이 가장 좋았다. 맑은 고딕체를 원하지 않으면 자신이 좋아하는 다른 폰트를 사용해도 된다.

위의 음성해설 문장에서 괄호(녹음점) 속의 내용은 녹음점이다. 즉 음성해설 성우와 엔지니어에게 주는 신호이다. 녹음점 적는 방법은 두 가지다.

(1) 영상에 타임코드가 있는 경우: 타임코드를 괄호에 적는다.

예) (0021) 타임코드를 괄호에 적어주세요.

(2) 타임코드가 없는 경우: 유표적인 대상이나 움직임, 변화를 기재한다.

예) (무대 암전) 무대가 암전된다.

공연 음성해설 과정

필자는 2021년 8월에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²⁴ 음성해설 대본을 썼고, 9월 공연에서 3회차에 걸쳐 극장에서 라이브로 해설했다. 이때 함께 작성한 제작일지를 공유하면서 음성해설이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음성해설 작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는 “2020년 2월에 초연된 연극으로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창작산실에 선정되어 재공연되었다. 여자고등학교라는 사회에서 여러 층위로 뒤엉켜있는 사랑과 성폭력, 성적 대상화와 성적 호기심, 성욕과 죄의식, 가해와 피해를 분리해내고 폭력을 직시하는 김이박들의 이야기”²⁵다.

.....

24 공연(2021년 9월 2부터 9월 19일)은 개방형 음성해설(매주 금요일 3, 10, 17일)이 제공되었다.

25 작품 소개 글에서 인용

〈음성해설 제작 과정〉

날짜	진행	내용	참고
2021년 8월 7일	연출님과 첫 통화	* 서로 소개와 인사 * 음성해설 작업에 필요 한 영상과 대본 요청	상황이 허락한다면 오프라인 미팅도 좋다. 이메일 교환 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나누는 것이 좋다.
8월 8일	메일로 공연 영상과 대본 받음	영상과 대본 확인	의문 사항 체크
8월 9일	조연출님 문자	* 연습실 가서 런쓰루 관 람하기로 함 * 런쓰루 날짜 조율하고 이후 최종 리허설 날짜 받음	영상은 작년 연극 실황을 찍은 것이 고, 참고용이기 때문에 최종 참고해 야 할 영상은 리허설이다. 하지만 런 쓰루 날짜가 확정되면 음성해설 작가 는 시간이 되는 한 연습실로 자주 찾 아가서 보는 것이 좋다. 런쓰루 영상 도 요청한다.
8월 10~ 20일	영상을 바탕 으로 1차 대 본 작성 및 질 문지 작성	질문지에는 연출, 배우, 조명감독, 음악감독, 시 각장애인 모니터에게 물 어볼 내용 담음	질문지에는 영상을 보면서 배우들의 행동이나 조명, 음악, 춤 등 궁금한 점 이나 의미를 질문한다. 음성소개에 들어갈 내용도 점검해둔다. 배우의 외모 등 음성해설과 관련해서 상세하 게 묘사하는 것이 가능한지 반드시 질문하고 동의를 구한다. 불편해하는 것은 음성해설을 위함이라 하더라도 하지 않는다.
8월 19일	질문지 보냄		
8월 21일	런쓰루 연습실 첫 방문	* 1차 가대본 보면서 영 상과 다른 점이나 배우 들의 움직임과 동선 확 인하고 체크 함	연습실에서 진행되는 런쓰루에서는 조명을 확인할 수 없다. 새로 바뀐 조 명에 관해 연출님에게 질문하고 답변 을 받는다.

날짜	진행	내용	참고
8월 22~23일	2차 대본 런쓰루 영상 받음	* 질문지 답변과 런쓰루 영상을 바탕으로 2차 대본 작성	
8월 26일	런쓰루 2회째 연습실 방문	* 2차 대본으로 연습실 에서 배우들 연습에 맞 춰 낭독 * 시각장애인 모니터님 과 의논하고 질문지 답 변도 받음	쉬는 시간에 모니터 받고 의논하고 조율한다.
8월 27일		* 연출님께 보내고 몇 시 간 후에 바로 답장받음 * 배우들의 동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최신 영 상 요청함	이때부터는 공연 날짜가 얼마 안 남 은 상황이기 때문에 빈틈이 없게 진 행한다. 하지만 연출과 제작진들에게 너무 많은 질문을 해서 번거롭게 하 거나 음성해설 문장 하나하나까지 모 니터 받지 않는다. 음성해설 작가의 주체를 가지고 자신의 영역에서 작업 에 임한다.
8월 29일	3차 대본	* 조연출님이 최신영상 보내줌 * 최신 영상과 모니터 님, 연출님과 의논한 것들을 배경으로 3차 대본 작성	3차 대본은 조명을 제외하고 완성본 에 가깝게 쓰는 것이 좋다.
8월 30일	연습실 런쓰루 3회차 방문	* 마이크로 실제처럼 낭 독하며 연습 * 연출님이 대사 앞뒤로 타이밍을 조절하고, 배 우님과 조율하며 유동 성 있게 연습	읽다가 도중에 틀려서 끊어지지 않게 대본 낭독을 충분히 해간다. 영상은 되감기해서 다시 낭독 연습하면 되지 만 런쓰루 연습에서는 실제 배우들이 또 연기해야 하는 상황임을 잊지 말 고 충분히 낭독 연습을 해가자.

날짜	진행	내용	참고
8월 31일	4차 대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4차 대본 메일로 보냄 * 시각장애인 모니터님과 통화(36분)하며 필요한 부분만 낭독하면서 모니터 받음 	긴 시간 뺏지 않도록 질문 내용을 미리 작성하고, 확인해둔다.
9월 1일	5차 대본 및 극장에서 최종 리허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별 진료소에서 코로나 검사(공연을 위해 협조할 사항은 반드시 한다) * 연출님과 모니터님의 의견 반영하여 현장에서 대본 5차 수정 * 배우와 무대, 음악, 조명까지 모두 세팅된 극장에서 최종 연습 * 시각장애인 모니터님(3분)께 필요한 모니터 받음 * 리허설 영상 받기로 함 * 음성소개²⁶ 원고 의논: 연출님이 무대와 작품 소개를 맡아서 쓰고, 음성해설작가가 배우를 맡아서 쓰기로 함 	5차 수정은 어휘의 다듬기 정도로 생각할 수 있다. 연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에 틀리지 않고 해설해야 한다. 최대한 많이 낭독 연습을 하도록 하고, 해설 들어가려고 한 타이밍을 절대 놓치지 않게 연습한다. 가령 배경음악에서 가사를 어디까지 살려두기로 했다면 잘 지키도록 한다.

.....

26 음성소개를 꼭 음성해설작가가 쓸 필요는 없다. 무대나 조명, 연극의 전반적인 정보는 연출이, 나머지는 작가가 분담해서 쓰고 작가가 최종적으로 취합하는 방법도 있다. 음성소개는 공연 7~10일 전에 작성하여 SNS 등에 업로드하면 좋으나 무대와 조명, 의상 등을 확인하지 못하면 공연 직전에 서둘러 작성할 수밖에 없다. 이번 경우에도 공연 직전에 완성했다. 제작진과의 조율을 통해 시간을 앞당길 수 있다. 하지만 다음에 재공연 시 음성소개를 일찍 제공하고, 달라진 부분을 계속 업데이트하며 수정할 수 있다.

날짜	진행	내용	참고
9월 2일	6차 대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로나 음성 판정 조 연출님께 통보 * 연출님의 음성소개 내용을 받아서 정리하고 다듬어서 음성소개 원고 최종 완성 후 메일 발송 완료 * 최종 리허설 영상으로 조명 확인하고 시각장애인 모니터(총 3분) 참고하며 대본 완성 	낭독 연습하고 최종적으로 확인한다.
9월 3일 (음성해설 첫 공연 날)	7차 대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종 리허설 위해 3pm에 극장 도착 * 연출님과 의논 후 대본 수정 * 음향과 음성해설 맞추고 배우님들과 최종 리허설 맞춰봄 * 첫 음성해설 공연 성공리에 마칩 	대본은 첫 공연 후의 모니터를 배경으로 수정될 수 있다. 그래서 사실상 최종 대본은 없다. 이번 경우는 8차까지 수정되었다.

사례

1. 노래 가사²⁷ 전달

노래 반드시 듣고, 해설 들어가기

♪ 음악1. 이아립 〈We Are The Universe〉

사람들은 저마다 하나의 우주예요.

두 사람이 느린 동작으로 무릎을 접고 앉아서

두 팔을 치켜들며 소리 없는 비명을 지른다.

우주의 창조자는 바로 당신이에요.

(바로) 둘은 느리지만 강렬한 에너지를 담아 몸을 비틀고,

두 팔을 뻗는다. 전구가 머리 위 높이로 올라간다.(음악)

거울 속의 날 항상 믿어요.

(전구꺼질 때) 기억의 전구가 꺼지고 조명이 두 사람을 비춘다.

꺼지려할 때 잘 맞춰서 들어가기/ 안되면 타이밍 조절

꺼지려할 때 잘 맞춰서 들어가기/ 안되면 타이밍 조절

본 연극에 삽입된 모든 노래 가사는 중요한 의미를 전달한다. 1차 음성해설 대본에서는 음성해설 문장을 앞부분에 배치하고 뒷부분의 노래를 살리는 전략을 썼다. 연출님과 회의 때, 노래 가사를(주황색 글자) 꼭 살렸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노래 속에 음성해설이 스며드는 효과를 줄 수 있도록 음성해설 문장을 최소한으로 줄이고 필요한 것만 선택적으로 표현했다. 이 전략의 가장 핵심은 음향과의 조화²⁸였다. 극장

.....
27 이아립 님께 고마움 전합니다.

28 연출과 조연출님께서 음성해설 관객 리뷰를 보내주셨는데, 합이 좋았다, 이질감 없었다, 빈틈을 꼭 채워주었다, 너무 좋았다 등의 호평들뿐이라서 모두 기뻐했던 기억이 있다.

에서 리허설 할 때 음악의 볼륨을 줄이고 높이는 지점을 맞춘 후, 해설이 들어가는 순간 볼륨을 낮추고, 해설이 끝나는 순간 볼륨을 높여서 가사가 정확하게 들릴 수 있도록 했다. 노란색 형광펜으로 칠한 것은 필자가 라이브 해설 때 참고하기 위해 표시해놓은 것이다.

2. 객관적 정보와 주관적 정보의 균형을 통해 관객의 해석 끌어내기²⁹

행동 맞춰서 확인하기

(짹, 찌릿찌릿 쿵) 사방은 뜨거운 열기와 같은 붉은 불빛으로 가득 차 있다. 최김은 바닥에 앉고, 백김은 누워있다.(음악)

(최김 누우면) 최김은 눕고, (행동보고) 백김은 벌떡 일어나 않는다. 최김도 일어나 않는다. 둘은 TV 뉴스를 본다.(음악)

♪ 음악2. 무키무키만만수의 노래 〈방화범〉

내가 방화범이야 찌릿찌릿찌릿찌릿

그게 타버렸을 땐 나도 충격을 받았지만

이 장면은 송례문 방화 사건이 한 축을 이룬다³⁰. 무대는 불길을 연상시키는 붉은 조명으로 가득하고 음악도 심장을 두드릴 정도로 강하고 강렬하다. 두 배우의 연기는 정적인 듯 하지만 내재 된 에너지는 강하다. 두 배우의 이글거리는 심리에 집중하기 위해 이번 장면에서는 ‘무대’라는 말 대신 ‘사방’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붉은 조명의 효과를 해석할 수 있는 실마리로 감각어(뜨거운 열기³¹, 붉은 불빛)를 사용했다. 반면 두 배우의 움직임은 객관적인 해설을 유지했다. TV 뉴스를 본다고 한 문장은

29 무키무키만만수 님께 고마움 전합니다.

30 내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스포일러가 될 수 있으므로 음성해설 전략에 대해서만 다루도록 하겠다.

31 이성수 시각장애인 모니터님께서 “뜨겁다”라는 말도 포함하면 어떨까 하고 아이디어를 주셨다.

연출님과 여러 번의 논의를 거쳐, 비시각장애인이 취할 수 있는 정보와 균형을 맞추려 했다. 전체적으로 해설문장을 짧고 효과적으로 작성하여 노래 가사를 최대한 더 많이 전달하려 했다. 시각장애인 관객이 원 소스의 정보(음악, 노래 가사, 배우의 움직임에서 나오는 소리)와 함께 스스로 극을 감상할 수 있도록 실마리를 제공하기 위해 해설문장을 전략적으로 다듬은 장면이라고 할 수 있다.

3. 표정

(바로) 자영언니가 서늘한 표정으로 돌아본다.

대사와 대사 사이 위의 짧은 문장이 들어가는 이 장면은 연출과 배우의 좋은 합으로 만들어졌다. 이 서늘한 표정을 설명하는 것은 극의 이해를 위해 무척 중요했는데, 해설문장과 배우의 표정 연기 타이밍에 시차가 생겼다. 연출은 정보의 일치성(해설의 내용과 무대 내용의 일치)을 무척 중요하게 여겼고, 그래서 배우가 조금 일찍 서늘한 표정을 지어 주면서 해설문장과 타이밍도 맞아 떨어졌다³².

4. 조명

(듣고) 무대 중앙에 선 정성태에게 빛줄기가 쏟아진다.

이번 연극에서는 핀조명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다. 정성태라는 캐릭터의 등장은 무척 극적이었고, 이 연출을 그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조명 효과에 더 집중해야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빛줄기라는 말을 썼다. 무대 조명이 주는 효과를 이해하기

.....

32 정보의 일치성의 중요성을 아는 연출님, 배우님과 함께 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좋은 음성해설 결과물로 이어진다.

위해 틸틈이 연출님이나 조명 감독님께 자문을 고하는 것이 좋다.

5. 음성소개(audio introduction)

2분 22초 분량의 음성소개는 연출님과 필자가 나눠서 작성했다. 음성소개 분량을 5분에 다 맞출 필요는 없다.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는 무대는 단순하고, 소품은 검은색 큐브 모양의 의자 두 개가 전부다. 천장에서부터 내려오고 올라가는 12개의 전구가 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배우도 두 명이고 의상도 특색 없는 일상복이다. 그리고 연극이 지향하는 이념을 존중하기 위해 배우의 외모나 신체를 설명하지 않았다. 물론 조금 더 보충할 부분도 있다. 객석의 구조를 상세하게 설명하고 계단 숫자까지 공지할 수 있다. 배우의 외모나 신체를 평가어(날씬하다, 말랐다, 귀엽다, 오밀조밀한 이목구비 등)를 사용하지 않고 서술하는 방법도 있다. 무엇보다 이 음성소개에서 좋은 점은 오해를 일으킬 만한 공연 중의 소음을 실제 그 소음을 들려주면서 설명한 부분이다. 줄에 매달린 전구가 올라가고 내려갈 때 ‘지잉~’하는 소리가 특히 음악이 없을 때 생각보다 크게 들렸는데, 시각장애인 모니터 분들이 그 소리를 듣고, 전구 소리일 것이라고 짐작은 했지만, 장난감 자동차 굴러가는 소리처럼 들린다고 지적을 해주시면서 음성소개에 넣기로 했다. 오디오 음성소개에서는 실제 그 소음도 확인할 수 있다.

연극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연극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할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입학한다' 음성소개 유튜브 영상]

<https://bit.ly/3CiDHMW>



신동극장

※ 덧붙이는 말씀³³: 이번 음성해설 연극은 모든 분이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완성되었다. 누구도 서로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았고, 존중의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제시하고 문장을 수정했다. 연출은 음성해설 대본 피드백에 제안을 덧붙이고 장면의 의미를 설명하여 작가가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가이드 해주었고, 배우들은 음성해설을 위해 움직임을 기꺼이 수정해주고 좋은 제안도 해주었으며, 조연출과 음향감독도 음성해설이 더 잘 들릴 수 있도록 전체적인 음향을 섬세하게 조절했다. 또한, 시각장애인 모니터는 실제 공연에서 음성해설이 무엇보다 잘 들려야함을 강조하고 상세한 모니터를 제공함으로써 더 나은 음성해설 공연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다. 이렇게 모든 분의 도움으로 음성해설 작가는 자신의 문장에 오롯이 집중할 수 있었다. 공연 음성해설은 100% 협업³⁴이다.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분위기 속에서 더 나은 음성해설 결과물이 나올 수 있고 그것은 시각장애인 관객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바로 음성해설의 지향점과 닿아있다.

.....

- 33 음성해설에 귀 기울여주시고 좋은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신 이래은 연출님과 김태령 조연출님 최희진, 백소정 배우님, 이성수 모니터님 이하 제작진께 감사드립니다.
- 34 공연 음성해설에 반해 방송 화면(음성)해설은 8~90%가 작가의 일이기 때문에 혼자 일한다. 업무 환경이 극과 극이기 때문에 음성해설 작가는 사람과의 관계 조율도 필요하다.

8. 맺는말

필자는 마지막 장에서 공연 음성해설을 고민하는 많은 분에게 (죄송하게도) 고민거리를 하나 더 던져주려고 합니다.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이:음 예술창작 아카데미에서 주최한 공연예술 분야 음성해설 입문 워크숍은 저에게도 좋은 배움의 기회였습니다. 먼저 감사의 말씀 전합니다. 로즈 차머스 선생님께서 열정적으로 수업에 임해주셨기 때문인지 참가자들도 눈을 반짝이며 최선을 다해 수업에 참여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수업 동안 많은 것들에 동의하면서도 많은 것들에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었는데요. 아마 언어와 문화의 다름, 공연 제작자들, 관객들, 제작환경 등 모든 것이 다르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앞으로 음성해설 공연을 제작하고 싶은 분들에게 혼란을 좀 덜어드리고 싶은 마음에 다양한 의문 중에서 한국의 제작환경과 한국 관객 등을 고려해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로즈 차머스 음성해설가는 참가자의 피드백을 통해 음성해설 시 ‘무대’라는 어휘를 사용하지 말 것을 강하게 권하고 있습니다. 즉 공연과 관련된 어휘(조명, 소품, 입장, 퇴장 등)를 사용하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관계자들과 배우들이 최선을 다해 현실감 있는 장소를 만들기 때문에 무대라는 용어를 써서 관객들의 몰입감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죠.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소품, 입장, 퇴장’이라는 어휘를 공연 도중의 해설에 써서는 안 된다는 말에 저도 동의합니다. 반면 커튼콜에서 ‘입장, 퇴장’이라고 사용하는 것은 무방하죠. 이러한 용어들은 공연 매체의 장르적 특성을 갖게 하는 어휘입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사용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무대나 조명이라는 어휘는 어떨까요?

제가 연극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갈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간다> 음성해설 대본 작성 시 시각장애인 모니터 이성수님께 들은 말입니다.

“어차피 시각장애인 관객들도 다 공연이라는 걸 알고 관람하러 오는데 무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이 이상하게 들리지 않아요. 몰입감이 떨어지지도 않구요.”

물론 이 분은 배우로도 활동하기 때문에 공연 전문 용어에 관대할 수 있을지 모르니다. 하지만 공연 관람 경험을 돌이켜 보면 무대는 강력한 존재감과 가시성을 갖고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 교실이나 숲, 혹은 마을로 바뀐다 하더라도 무대 본연의 가시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무대가 숲이었다가 다시 교실로 바뀌었을 뿐이었지요. 반면 영화나 드라마는 진짜 교실과 숲을 보여주기 때문에 관객의 상상력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지점이 공연의 차별점이자 매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음성해설의 기능과 목적은 명확합니다. 눈앞(무대나 영상)에 벌어지는 사건들을 해설해서(가르치지 말고) 이용자(관객)들의 상상력과 감정을 일깨워 작품을 이해할 수 있도록 보조하는 역할입니다. 무대가 조명의 여러 효과 속에서 숲으로 바뀌는 것을 음성해설을 통해 설명한다면(공간이 부족하다면 음성소개를 이용) 시각장애인 관객들도 진짜 숲을 상상하지 않고 숲으로 꾸며진 무대를 상상하려 애쓸 것입니다. 시각장애인 대부분은 사고나 병으로 시력을 상실했고 과거에 공연을 관람한 경험이 있습니다. 전맹으로 태어난 시각장애인이라 하더라도 공연장의 현장감은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바로 앞에서 찌렁찌렁 들리는 배우의 목소리와 호흡, 심장을 두드리는 음악, 생생한 효과음 등이 바로 공연장을 찾은 시각장애인들을 극에 몰입시키는 핵심 요소가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대’라는 어휘를 무조건 배제하기보다 적절하게 사용하여 시각장애인 관객들의 상상력을 일깨우는 방법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연극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갈 때 김이박이 고등학교에 간다>에서 무대와 조명이라는 어휘를 최소한으로 사용했고, 조명은 그 효과에 좀 더 중심을 두었습니다. 즉, 음성해설

작가는 기계적으로 ‘무대가~, 조명이~, 핀조명이~’라고 쓰는 것을 경계하고 자신이 선택한 어휘가 관객에게 최종적으로 어떤 효과를 일으킬지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연의 특성에 따라 전문 용어(무대, 조명)보다 현실 용어를 사용하여 해설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되면 그렇게 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단 근거와 타당성은 있어야 하겠죠. 여러 가지 전략을 채택해서 해설할 가능성을 열어 두되, 가장 중요한 것은 시각장애인 관객들이 즐겁게 관람하는 것이어야 함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발행일
2021. 9.

발행인
안중원

발행처
(재)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

진행
보컬아이즈 (VocalEyes)
로즈 차머스 (Roz Chalmers)

기록·저자
서수연_음성해설 작가, AD미디어연구소

기획·운영
신상미, 허유진, 심예송, 황신아

본 지침서는 무단전재를 금하며,
저작권은 저자와 한국장애인문화예술원에 있습니다.
저작권자의 동의 없이 내용의 일부를 가공하거나
무단 사용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12 이음센터
WWW.I-EUM.OR.KR

